

## 뉴욕시, 채용 공고에 급여 명시 의무화



▲ 뉴욕에서는 채용 공고 시 임금을 명시해야 한다.  
사진=shutterstock

뉴욕에서 기업이 채용 공고를 낼 때는 급여를 명시해야 한다.

2일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뉴욕시에서는 이달부터 기업체가 채용 공고에 급여 범위를 명시하도록 의무화한 법이 시행됐다. 이에 따라 뉴욕에 소재한 직원 4인 이상 업체는 채용 공고를 낼 때 해당 직책의 임금 구간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또 내부 승진, 전근 희망자에 대해서도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이른바 '급여공개법'은 뉴욕시 인권위원회 주도로 제정됐다. 이 법은 남녀 급여 격차를 해소하고 급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됐다. 급여공개법을 위반하면 25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재계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노동 수급이 빠듯한 시기인데 급여공개법이 고용 상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한다. 기존 직원의 임금이 채용 공고에 명시된 급여보다 낮은 역전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급여를 비교하며 회사에 항의하거나 경쟁사로 이직하는 사례가 나타나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직원들이 적정 임금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는 긍정적 평가도 나온다. 성별·인종별 급여 차이가 해소되고, 점차 다양한 조직 구성원에게 합리적 보상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콜로라도주와 워싱턴주 등 다른 주에서도 이와 유사한 법이 시행되는 등 법이 전국으로 확산할 조짐이다.

낱말퍼즐 정답																	
1 고	생	2 담				3 정	당	4 성									
자		5 요	6 모	조	모			선									
7 질	8 문		꼬				9 누	설									
				지			10 멍	에									
	11 걸	작			12 종			고									
13 시	식			착			14 치	적									
비		16 기	왕	지	17 사			임									
18 조	리	개			19 위	선		자									

## 미국 연방의회에서 '김치축제' 열린다

미국 연방 의회에서 최초로 김치와 관련된 이벤트가 열린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주한인아민사박물관(MOKAH·관장 김민선)은 전날, 오는 12월 6일 워싱턴 DC 연방의회 도서관에서 김치의 날 축하 행사가 열린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MOKAH가 한국의 법정 기념일인 '김치의 날'을 미국의 공식 기념일로 지정하자는 결의안을 낸 캘럽린 멀로니 의원 등 12명의 하원 의원들과 함께 기록했다. 행사에서는 김치 담그기 시연과 함께 김치를 이용한 다양한 음식이 의회 관계자들에게 소개될 예정이다. 현재 117대 연방의회의 임기가 내년 1월 3일 종료되기 전에 김치의 날 결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의회 내 여론을 활성화하겠다는 목적이다.

의회 내 반응도 한국의 김치를 기념하자는 결의안 내용은 당파적 색채가 없기 때문에 여야를 막론하고



▲ 미국 연방 의회에서 최초로 김치와 관련된 행사가 열린다. 사진=연합뉴스

우호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김치의 날 축하 행사에도 연방 의회에서 열린 한인 행사 사상 가장 많은 수의 의원들이 참석할 예정이라는 게 MOKAH의 전언이다. 특히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도 김치의 날 결의안에 깊은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연방의회가 아직 외부인들에게 의회를 개방하지 않는 상황에서 김치의 날 축하 행사가 열리게 된 것도 펠로시 의장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 미국 근로자 노동 생산성 급락

올해 들어 미국 근로자의 노동 생산성이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올해 미국 2분기 비농업 부문 노동 생산성은 전분기보다 4.1%, 작년 동기보다 2.4% 각각 하락했다. 앞서 1분기에는 전분기보다 7.4%, 작년 동기보다 0.6% 각각 떨어졌다. 노동 생산성은 한 명의 근로자가 한 시간에 생산할 수 있는 상품·서비스의 양을 나타내는 지표로, 올해 감소 폭은 1947년 이후 가장 큰 것이다.

코로나19 대유행 직후 기업들이 재택 근무로 전환했다가 다시 대면 업무를 하기 시작한 뒤 나타난 이 같은 생산성 하락의 배경을 두고 여러 가설이 제시된다.



▲ 코로나19 사태 이후 미국 근로자의 노동 생산성이 크게 하락했다. 사진=shutterstock

미국 재무장관을 지낸 경제학자 로렌스 서머스는 '조용한 사자'를 그 이유로 들었다. 조용한 사자는 직장에서 최소한의 일만 하며 심리적으로 직장과 거리를 두는 것을 가리키는 신조어로 최근 미국에서 널리 퍼지고 있다.

치솟는 물가도 노동 생산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물가가 오르면 노동 생산성이 같아도 근로자들이 더 많은 비용으로 더 적은 양을 생산하게 되기 때문이다.

미국 싱크탱크 콘퍼런스보드의 클라스 더프리스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미국뿐 아니라 프랑스, 독일, 캐나다에서도 노동 생산성이 하락했으며, 앞으로 몇 달간 그 하락 폭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 숨은그림찾기 정답

